



## 행정전산시스템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주)원텍시스템

95년 7월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주)원텍 시스템은 창업 1년만에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이다.

(주)원텍 시스템이 개발한 C/S빌더는 국산 주전산기를 활용한 시·군·구 행정전산시스템을 C/S구조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응용소프트웨어로 전국 2백40개 시·군·구 중 이미 20여 곳에 보급을 끝내고 내년까지 1백80여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원텍시스템(대표 李相勳)은 국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벤처기업으로 정보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벤처기업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주전산기

용 클라이언트/서버 구축용 미들웨어인 C/S빌더를 개발한 S/W전문업체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C/S빌더는 국내 전산 환경이 C/S환경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국산 주전산기를 활용한 시·군·구 행정전산시스템 개발시 C/S 구조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이다.

〈주)원텍시스템은 1995년 7월 설립되어 1년만인 1996년 7월18일에 정보통신부 선정 '96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뽑힐 만큼 기술력에서 만큼은 인정을 받고 출발한 업체이다.

### 창업 1년만에 有望기업 선정

회사설립 만 1년만에 이례적으로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주무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서버로 하고 PC를 클라이언트로 구축하는데 있어 ISAM, LAN, X.25 등을 지원함은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들웨어인 C/S빌더 때문이다. 이 회사의 이상훈사장이 관계형DB를 공급하는 회사에 근무할 당시 방대한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관공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W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국산 주전산기는 현 관공서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나 각종 S/W의 취약으로 인하여 대외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외국의 여러 통신 S/W의 환경이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 주전산기의 보급 및 효과적인 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 1년 정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Prototype을 만들어 시험운영을 거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기능이 구현될 경우 국산 주전산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성능을 2~5배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



▲ 국내 최초 주전산기용 클라이언트/서버 구축용 미들웨어인 「C/SBUILDER」개발에 성공한 (주)원텍시스템의 이상훈사장은 이 소프트웨어는 국내 관공서 전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었음을 강조한다.

능으로 그 개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기에 누군가가 개발해야 했고 기왕이면 관공서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가 한 번 해보자고 결심하고 개발에 착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윈텍시스템은 C/S빌더를 개발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이사장의 말이다. 94년 개발에 착수한 이상훈사장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 들였고 C/S빌더 개발의 핵심기술을 맡은 김종민책임연구원과 함께 100% 자체기술로 개발해내는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이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호스트 컴퓨터, 관계형데이터베이스, 전자결재 시스템, 네트워크 설치 그리고 486급 이상의 PC 및 S/W를 구매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클라이언트 서버시스템 구축을 많이 망설였다고 한다.

### 처리속도 2~5배 빠르게

그리고 설령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시작하는 경향 때문에 호스트 중심의 프로그램과 GUI 중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윈텍의 C/S빌더는 관계형데이터베이스를 서버로 활용하면서 PC, 특히 286급 이상의 클라이언트면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윈도 환경중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발자들은 교육이 제대로 습득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법을 통해 업무를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의 3세대 언어로 텍스트 및 윈도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한다. 이렇게 개발된 C/S빌더는 응용프로

그램의 처리속도를 2~5배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하드웨어, 관계형 D/B네트워크에 관계없이 개발이나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 주전산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군·구 등 관청이 약 2백40여개 있는데 이미 20여 군데는 C/S빌더를 보급했고 금년 말까지는 80군데, 내년 말에는 1백80군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D/B의 다양화로 미들웨어 시장이 급성장하여 D/B와 유사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해외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미들웨어 자립도에 <주>윈텍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주>윈텍은 DESK TOP DBA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D/B의 SQL스 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윈도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MIGRATION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문 지식을 요하는 DBA나 시스템관리자들이 전문지식의 습득없이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DESK TOP DBA 또 ORACLE, SYBASE, INFORMIX 등 상용 RDBMS에 적용할 뿐 아니라 국산 주전산기 등 H/W에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현재는 <주>윈텍이 공급업체이지만 앞으로 꼭 국산화에 성공할 것이라고 이사장은 전한다. 기업 설립 1년만에 유망중소 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기술력은 물론이고 회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능력면에서 정부의 객관적인 1차 심판을 받았다고 보고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오늘 생겨서 내일 문닫는 그런 S/W업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전

한다.

### 연차계획으로 새모델 개발 진행

<주>윈텍이 국내 S/W의 틈새를 멋지게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S/W사업 자체가 중소기업에 맞을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USER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올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를 연구개발의 1차년도로 두고 HOST DB SERVER (주전산기에 탑재된 DB를 지원하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서버), Client SQL Processing Library(PC클라이언트에서 호스트 DB를 Access하기 위한 SQL을 처리해주는 모듈), Network Server (LAN, Serial, X.25 등에 대한 Multi-Protocol Network Server) 등 시제품을 개발모델로 정립하였고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2차년도에서는 다중 모드간 처리기능이나 Replication기능, 분산기능(동 DB간 분산처리, 타 DB간 분산처리,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분산처리), Monitoring System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개발 뿐 아니라 내년에는 연구인원 확충을 위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사장은 회사설립 후 휴가다운 휴가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 못하고 용역업무를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직원에게 무척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사원 모두가 '일하자'라는 분위기로 뚝뚝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무척 고맙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회사 특성상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택(在宅)근무를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하정실 (본지 객원기자)